



환경부, '어린이를 위한 물절약 이야기' 발간



지난 3월 환경부는 어릴 때부터 물 절약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 물의 소중함, 물 절약의 중요성, 생활에서의 실천방법 등을 쉽고 재미있게 서술한 "어린이를 위한 물 절약 이야기"를 발간하여 전국의 초등학교에 배포하고 환경교재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이 교재는 환경부의 의뢰로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물 분야 및 아동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개발한 것으로 물에

관한 기초상식 및 수도물 생산, 수질 오염, 물 절약 필요성 등이 재미있게 소개되어 있으며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그래픽과 삽화, 이야기 등이 삽입되어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물 학습교재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선 교사들에게는 물 절약을 위한 효과적인 교재로 활용되고 어린이들에게는 물 절약과 물 사랑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2004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 개최



환경부는 지난 3월 22일, 제12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한강 선유도공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 국무총리와 광결호 환경부장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단체, 학계, 산업계 인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세계 물의 날은 날로 심각해지는 물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1992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제정·선포되었으며, 올해 물의 날 주제는

'물과 재해'이다. 특히 환경부는 올해 맑은 물 보전, 안전한 수도물 공급, 물 절약, 물 관련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박승우 서울대 교수에게 홍조근정훈장이 수여되는 등 물 관리에 기여한 민간인 등 20명에게 정부 포상이 주어졌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의 물사진 전시회가 야외 전시장에서 열려 시민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도 하였다.

환경부, 4대강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



환경부가 발표한 "2003년도 4대강 주요 상수원 지역의 수질현황 자료"에 의하면, 노량진, 물금, 부여, 나주 등 하류지역의 수질이 III급수에서 II급수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대적으로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상류지역(팔당, 충주, 대청 등)은 예년의 I, II급수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4대강의 주요 상수원 수질이 골고루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결과가 '99년부터 시행된 4대강 물

관리 대책의 꾸준한 시행의 결과로 보고 있다. 또한 상류 수계의 댐 방류량 증가도 수질 개선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고 하천 유지용수의 적정 관리가 수질 개선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4대강 수계의 지난 3년간 수질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BOD(생물 화학적산소요구량)기준으로 한강수계의 경우 상류는 예년과 거의 같은 수준(의암 1.2mg/L, 충주 0.9mg/L, 팔당1.3mg/L)인 반면, 하류(노량진 2.8mg/L, 가양 2.8mg/L)는 III 급수에서 II 급수로 개선되었다.

상류에 위치한 의암 및 충주의 수질이 다소 떨어진 것은 태풍 매미 등 폭우성 강우로 댐 수문의 방류 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수체교란이 일어나 부유입자상 유기물질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수계는 전 지점(안동, 고령, 남지, 물금, 구포)에 걸쳐 수질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0.9~2.1mg/L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낙동강 중류의 고령지점은 2001년에 비해 크게 개선【4.2mg/L('01)→3.6mg/L('02)→2.1mg/L('03)】되었으며, 하류 최대 상수원인 물금 또한 수질이 개선【3.0mg/L('01)→2.6mg/L('02)→2.1mg/L('03)】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수계에서 상류지점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옥천 1.0mg/L, 대청댐 1.1mg/L)이며, 중하류지점(청원, 공주, 부여)은 2년 전에 비하여 오염도가 1.6~0.9mg/L 감소되었다. 영산강 수계의 수질은 중하류를 중심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1년과 비교하여 우치는【0.8mg/L(2.8mg/L('01)→2.4mg/L('02)→2.0mg/L('03)】, 광주는【1.3mg/L(4.3mg/L('01)→3.9mg/L('02)→3.0mg/L('03)】, 나주는【1.4mg/L(6.2mg/L('01)→5.6mg/L('02)→4.8mg/L('03)】이 감소하였다.

관리 대책의 꾸준한 시행의 결과로 보고 있다. 또한 상류 수계의 댐 방류량 증가도 수질 개선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고 하천 유지용수의 적정 관리가 수질 개선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4대강 수계의 지난 3년간 수질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BOD(생물 화학적산소요구량)기준으로 한강수계의 경우 상류는 예년과 거의 같은 수준(의암 1.2mg/L, 충주 0.9mg/L, 팔당1.3mg/L)인 반면, 하류(노량진 2.8mg/L, 가양 2.8mg/L)는 III 급수에서 II 급수로 개선되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상하수도 서비스 아시아포럼 대전에서 개최



지난 4월 16일에는 개도국과 선진국간 실질적인 물공급체계 상호협력 방안을 위한 「상하수도 서비스 아시아포럼」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주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대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개도국의 상하수도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선진국의 물공급체계를 개도국에 접목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되었고 총21개국 150여명의 전문가가 참가하였다. 특히 한국측에서 한국의 물서비스 정책방향(환경부 윤승준 과장)과 한국의 물서비스 실태(한국수자원공사 안효원 부장)에 관한 발표와, 몽고와 베트남이 자국의 현황을 발표하고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선진국의 좋은 물 공급방법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는 후 개도국과 선진국간 협력방안에 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기표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이므로 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물관련 회사가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이번 포럼 개최의 의의”라고 밝혔다.

시민환경연구소, 간이상수도 문제해결을 위한 세미나 열어



지난 4월 7일 시민환경연구소는 '간이상수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이라는 주제로 환경재단의 후원으로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제7회 시민환경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근 위생적으로 취약한 간이상수도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각 부문(우리나라 간이상수도의 현황과 문제점, 건강장해,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환경부, 한국상하수도협회, 경상남도, 환경운동연합에서 나온 패널들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환경관리공단, 하수처리장 461곳 신설



환경관리공단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2007년까지 낙동강 수계의 남강·합천·안동·임하댐, 한강 수계의 소양강·충주·대청댐 등 7개 다목적댐 상류지역에 1조 853억원을 투입하여 461개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겠다고 지난 3월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 하수도 보급률은 2001년 말 현재 27%에서 2007년 75%선까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전국의 하수도 보급률도 2002년 말 현재 75.8%에서 8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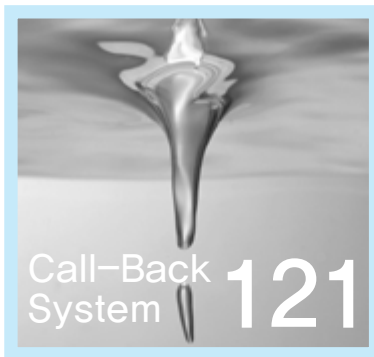
또한 공단은 효율적인 하수도 관리를 위해 정보기술(IT)과 환경기술(ET)을 접목한 중앙원격 감시제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점오염원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3천700억원의 환경개선지원금을 융자금 형식으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의 환경오염방지사업을 활성화하고 내수경기 회복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국제수돗물종합검사센터 준공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3월 18일 대전 본사에서 광결호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각계인사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수돗물종합검사센터』 준공식 행사를 열었다. 본 검사센터는 세계 최고수준의 수질검사 능력과 최첨단의 시설을 갖추고 수돗물을 종합적으로 검사 분석 연구하는 기관으로 253억원을 투자하였고, 미국 몽고메리 왓슨사가 개념 설계한 본 센터는 5천여 평의 대지 위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이다.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121번 민원서비스 대폭 개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민원전화 121번 교환시스템을 종전의 수동 연결

방식에서 자동연결방식으로 변경 개선하고, 홈페이지 도메인 「121.seoul.go.kr」을 추가 운영하여 상수도 민원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수도민원서비스를 실시키로 하였다.

이번 민원서비스 개선사업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지향하며 사업본부가 1억7천만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준비해온 사업으로서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했다. 시내 일반전화의 경우 국번 없이 “121”번을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 지역 민원 담당자에게 직접 연결된다. 따라서 종전에 교환원을 통해 전화 연결이 될 때 발생하기도 했던 서비스 지연이나 통화가 끊기는 일 등이 없어진다. 핸드폰이나 시외전화의 경우 “02-121”번을 누르고 ARS 안내에 따라 해당번호를 누르면 원하는 수도사업소로 연결된다.

한편 사업본부는 이와 함께 콜 백 시스템(Call-Back System)을 도입했다.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번호가 기록되듯이 “121”서비스도 통화중인 경우 발신인의 번호가 컴퓨터에 남는다. 이 번호로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겨울철 한파로 인한 계량기 및 수도관 동파 등의 문제로 민원이 폭주시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졌다.

한편 기존에 사용하는 「water.seoul.go.kr」도메인에 시민들이 기억하기 좋고 이미 시민들이 사용한 경험이 있는 121번을 도메인으로 활용한 「121.seoul.go.kr」을 추가로 운영함으로써 민원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 물수요관리 목표제 전국 최초 실시



경기도는 물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을 아껴 쓰기 위하여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3월 4일)하여 2005년 6월부터 물수요관리 목표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수요관리 목표제란 △ 유수량 제고(노후관 교체 등) △ 사용한 물을 재이용하는 중수도시설 보급 △ 변기 등의 절수기기 설치 △ 빗물이용시설 설치 △ 하·폐수 이용 △ 수도요금 합리화 등을 통해 “물 수요량을 10%이상 절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은 환경부의 승인(2004년 6월)을 얻어 시·군별 물 수요관리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한 후 2005년 6월부터 추진되는데, 2011년까지 총 3,618억원이 투자되는 등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물수요량의 약 10%인 1억 4천만 톤의 물수요량이 절감(2011년 기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남도, 올해 상수도 보급률 80% 설정

경상남도는 군지역과 도서지역 등의 만성적 물부족 현상을 조속히 해결하고 수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장기 물수요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올해 상수도분야에 8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도내 상수도 보급률을 80%, 2010년에는 9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지난 4월 7일 밝혔다.



사업별로는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사업 12개소 237억원, 간이상수도 시설 개선 112개소 72억원,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 2개소 254억원,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162km 192억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74억원 등이다.

또 남강, 밀양댐 광역상수도 시설을 설치해 통영, 남해, 창녕 등 7개 시·군 26만 9,000명의 제한급수지역에 대한 만성적 급수난을 해결한데 이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3,016억원을 투입해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도는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시설 28개소, 분뇨처리 시설 22개소,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 5개소를 운영한데 이어 하수종말처리시설 135개

소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4개소를 설치해 29억 2700만원을 투입하고 90 개소의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뉴스를 기다립니다!

상하수도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알고 싶은 소식이나 뉴스가 있으면 협회 담당자(홍보팀 신재택)에게 보도자료(사진자료 포함)를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jtshin@kwwa.or.kr

※ 사진자료는 인쇄를 위해 고해상도 300dpi 이상 (jpg 또는 bmp파일)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멕시코 제4차 세계물포럼 개최 발표

비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인 22일 제4차 세계물포럼(WWF) 회의를 2006년 멕시코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폭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관저인 송림대에서 작년 제3차 WWF를 개최한 일본 의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전 총리 등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고 "물은 21세기의 종대한 주재이자 우리의 운명이 공동으로 걸린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제4차 WWF는 세계 빈국들에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상대적으로 물 공급이 충분한 중남미 국가가 직면한 주요 문제로 여겨진다.

멕시코에서도 대부분 수돗물을 먹는물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처리를 거친 생수를 구입해 먹는다. 이에 따라 멕시코는 2006년 WWF 개최에 앞서 멕시코 정부 산하 국가물위원회 및 국제 물정책 연구단체 세계물위원회(WWC) 공동으로 일련의 지역

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동시에 향후 2년간에 걸쳐 인터넷상으로 '사이버 포럼'을 열어 비정부기구(NGO)를 비롯한 일반 대중의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한편 멕시코와 미국 간 이른바 '물분쟁'은 제4차 WWF 주 의제로 다루지지 않는다. 앞서 제3차 WWF는 작년 3월 일본 교토에서 8일간 일정으로 개최됐다.

[미국] 美 캘리포니아주 담수화 사업 논란

만성적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드디어 무진장의 수자원인 태평양 바닷물을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으나 여러 가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원래가 사막이었던 남부 캘리포니아의 지역적 특성상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물의 90%는 주로 콜로라도 강 등 4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부터 공급되지만 수량이 점차 줄어들고 비용이 증가하는데다 공급 과정에서 오염도가 높아져 대체방안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인접한 태평양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담수화 공장 18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캘리포니아주는 과거 오웬즈강으로부터 로스앤젤레스와 샌퍼난도 벨리까지 장장 370여km에 이르는 수로를 건설하는 오웬즈 벨리 프로젝트로 흑심한 가음에 대비했지만 이 계획은 소수의 임자들 배만 불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최근 태동되고 있는 담수화 작업 역시

과거 영국에서 벌어졌던 것과 같은 논란을 빚고 있다. 영국에서는 담수화 공장 인영화를 둘러싸고 시장논리에 좌우되는 민간 회사가 천연자원을 점유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일본] 히타찌 막형 하수 처리 시스템의 처리수질

하수 처리장으로 배출된 처리수는 일본 전국에서 연간 약 130억ℓ(2000년 국토교통성 감수 '일본의 하수도')에 이른다. 방류되는 하천, 해역 등 공공 수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 처리수의 수질 향상이 요구되고 있고 자원 순환형 사회의 형성과 동시에 그 재이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비용'이나 '안전성'에서 현재 상태의 재이용률은 약 1%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히타찌 플랜트와 일본 하수도 사업단이 1998년부터 2년 반에 걸쳐 공동 개발한 '히타찌 막형 하수 처리 시스템'은 종래의 생물 처리와 정밀 여과(MF)막에 의한 막분리를 조합시킨 차세대형 하수 시스템이다. 건설비용은 종래의 방식과 비교해 줄어들며 3,000m³/일 이하의 처리 규모에서는 유지 관리 비용 등을 포함한 연간 총사업비는 종래의 방식과 같거나 그 이하이고 BOD, 질소, 인은 물론 막에 의한 분리에 의해 세균도 제거 가능해 처리수의 재이용도 기대되고 있다. 